

비엔날레에서 만나는 지역 작가들의 목소리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정유승·문선희·박세희·윤세영 등 10여 명 문화전당 전시
5월 이야기·무등산 주제... 회화·미디어아트·설치 등 선배



2018 광주비엔날레는 43개국에서 165명의 작가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다. 이번 전시에는 지역 작가들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포트폴리오 리뷰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명의 지역 작가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생존의 기술: 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 섹션에서 만날 수 있다. 고(故) 이강하 작가와 정선희 작가의 풍경화는 옛 국군광주병원에 전시중인 아찔한 위타 세라쿤의 작품 '별자리'에 등장했으며 이매리·이세현 작가는 헬싱키국제아트리스트 프로그램의 전시(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와 필리핀 현대미술 네트워크의 '햇하우스'(이강하미술관·햇 하우스)전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 작가들은 회화, 미디어 아트, 설치, 사진 등 다양한 장르로 목격한 5월 이야기 등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내며 관람객들과 만나는 중이다. 전당에서 만날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박화연 작가는 5월 이야기를 세계의 작품으로 풀어냈다. '당신의 할머니, 김정복'은 5·18 유가족인 김정복 할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그의 삶의 궤적을 다양한 소품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89년 5월 사망한 아들 민정진의 옛날 사진,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할머니가 신었던 신발, 안티 프라미니가 놓여있는 화장대 모습 등은 깊은 울림을 준다.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도청 앞 분수대를 형상화한 설치물에 5월 관련 증언들을 모아 둔 작품이다. '5·18 때 감옥에 가려고 내 있다 온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광주는 한 눈 깜짝하면 두 눈이 대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증언자들의 글이 몽글하다. 그밖에 사람드의 발걸음을 촬영한 영상 '실마리를 찾아서'도 만날 수 있다.

문선희 작가의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연작은 1980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80명과의 인터뷰에서 영감을 얻고 그들이 살았던 골목길의 '담벼락'을 촬영한 사진 작품이다. 외마디 비명 같은 '탕!'이라는 제목과 함께 걸린, 낡은 유리창이 달린 담벼락 사진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앗!', '도망쳐!', '아무것도 못했어요' 등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정유승 작가는 성매매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전시 중이다. 광주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를 촬영한 영상 '집결지의 낮과 밤', 의상·신발·악·돈봉투 등 성매매업소의 사물들을 통해 착취와 폭력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2003년 3월23일'(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날) 등이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긴 증언집을 만날

수 있는 '시선의 반납' 공간에서는 그녀들의 고백이 담긴 글을 차분히 앉아 읽어보는 이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미디어아티스트 박세희 작가의 작품 '2018 무등산타자-사유의 가상 정원'은 숲 사이로 난 길을 걷듯 수직으로 설치된 얇은 천같은 스크린을 찢고 들어가며 경험하게 된다. 마치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기분이다. 이어지는 공간에 놓인 두 개의 스크린에서는 자연과 일상의 몽환적 이미지가 어우러진 무등산의 풍경을 만나는 '2018 무등산타자-무등도원경유람'의 영상이 흘러나온다.

강동호 작가의 작품 '하이브리드 사피엔스' 연작은 유쾌하다. 인간과 기계, 동식물이 어우러진 화면은 온갖 소재들이 제멋대로 퍼지고, 움직이며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상상력 넘치는 공간이며 그 분위기를 강화시키는 건 화려하고 짙은 색감들이다.

반면 바로 옆에 전시된 한국화가 윤세영 작가의 '생성지점' 시리즈는 목격한 화면이 깊은 심연의 세계로 관람객을 끌고 간다. 장치에 석재와 분체로 그린 작품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난을 상징하는 수많은 작은 가시와 함께 푸른빛의 아련한 색감이 작품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평면 작품 바로 옆에는 솜과 가시를 이용한 설치 작품을 함께 배치, 입체감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작가 이정록의 '사적성소 #3' 시리즈에서 만나는 건 '불가사의한 빛'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신성한 장소를 택해 사진을 찍어온 그는 이번엔 일제 시대 강제 징용 노동자들이 만든 여수 마래 터널을 배경으로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과 역동적 에너지를 한줄기 빛으로 표현해냈다.

최기창 작가의 '더, 한번 더, 그결로는 충분치 않아'는 하얀 기둥위에 수많은 어구를 음각으로 새겨넣은 작품이다. 1450곡에 달하는 국가, 찬송가, 군가, 가요 등에서 뽑은 699개의 문구는 '조국의 부름에' '삼천만번 죽더라도' '누가 아름답다 했는가', '사랑하고' 등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재구성을 통해 사랑과 맹신, 부재와 분노 등 개인과 개인, 집단과 개인 사이 존재하는 감정과 신념에 의문을 던진다.

그밖에 북쪽 2관 입구에서 만나는 박세희 작가의 'Passengers'는 공항에서 수하물 이나가는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을 찍은 영상과 의자, 식물, 전광판 등을 설치한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Bon Voyage(여행 잘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과 영상이 투영되는 장막을 통과하며 공항으로 이동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전시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독특한 연꽃 속 '인생讚歌'

박명숙 도예전 7~13일 서울 인사동 G&J 광주 전남 갤러리

화순 계당산 산중에서 전통 장작가마를 고수해 오고 있는 도예가 박명숙이 서울시 인사동 G&J 광주 전남 갤러리에서 7일부터 13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개막행사는 7일 오후 5시.

'인생讚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박 작가는 지난 3년 동안 장작가마에서 작업한 여러 작품 중 30여 점을 선보인다. 백자유약을 전통백자처럼 기물 안팎에 바르지 않고 안에 바른 것이 특징이다. 현재 박 작가는 화순에서 무량광도예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남편은 광주일보에 '정찬주의 유람예술기행'을 연재 중인 정찬주 소설가다.

그동안 박 작가는 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전시 작품은 주로 연꽃 이미지로, 연꽃의 일생을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했다. 작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향아리 입술(전)을 두 겹으로 해 연꽃 이파리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박 작가는 향아리의 전(입술)은 한 개가 전통적 방식인데 발상을 전환한 것에 대해 "3년 전 오스트리아 초대전에서 처음 시도했던 이중전(두 겹의 전)과 연꽃에 대한 현지인의 감동적인 반응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작가는 전남 도립대 도예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했으며 도예가 지현 김기철 선생과 한국화가 외산 김기봉 선생의 사사를 받았다. 2015년 오스트리아 빈 알파크 갤러리 초대전, 2016년 인사동 LA MER 갤러리 '불속에 핀 연꽃'전을 개최했다. 문의 02-2223-254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미술상 후보자 공모... 25일 마감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배동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24회 광주미술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광주-전남 출신 및 5년 이상 거주자로서 만28~45세 미만 청년작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광주미술상운영위원, 작가 본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된 자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응모원서(웹하드 gd1403, 패스워드 1403) 1부, 포트폴리오(A4크기 최근3년 이내 제작한 작품사진 등)1권, 영상CD 1매,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1통으로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하다. 마감은 오는 25일까지다.

1차 심사는 오는 12월 4일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서류심사에서 후보자 3명을 선정, 당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후보자 3명의 프리젠테이션 설명 후 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로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으로 상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중진부터 원로까지 선배 미술인들이 후배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결성된 단체다. 문의 010-2608-273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 시공전 2. 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 시공후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